30만 정원도시 그리는 순천 새 정부 국정과제 건의 총력

인수위 건의 지역현안 파악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 개최

국가정원 식물원 조감도. 〈순천시 제공〉

순천시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시급한 지역 현안이 국정과제 핵심사업에 반영되도록 전방위로 힘을 쓰기로 했다.

순천시에 따르면 새 정부에 건의한 지역발전 현안 사업은 ▲대한민국 제1호 정원 도시 순천 시범사업 ▲전라선(KTX) 고속철도 조기 건설 ▲전남 동부권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설립 ▲국립 보훈 요양원 건립 ▲전남 동부권 국도 2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설 ▲국립민속박물관 호남분관 건립 ▲경전선 전철화 사업 도심구간 지하화 ▲순천만 갯벌 힐링 치유센터 건립 ▲유네스코 여자만 해양 정원 조성 사업 ▲동북아 평화를 위한 제3회 순천시 세계 기후평화 포럼 개최 등이다.

시는 새 정부 대선공약과 연계한 순천형 과제를 부서별로 추가 발굴하고, 지난 18일 실행계획을 공유하기 위한 보고회를 가졌다.

앞서 순천시는 지난해부터 대선에 대비해 순천시 신성장 동력 발굴 용역을 통해 메가 프로젝트 사업을 발굴한 바 있다. 정책 반영을 위해 정당 관계자 및 정치권과 소통하거나 중앙부처 등과 긴밀한 활동을 펼쳐왔다. 지난 5일에는 새정부 국정과제에 지역 핵심사업 반영을 위해 인수위를 방문해 지역 현안 사업을 건의하기도 했다.

보고회를 통해 추가 발굴한 순천형 과제는 ▲순천형 4차산업 기반 기업·인력 양성 ▲순천 문화시장(아트페어) 조성 ▲남도 예술의 전당(에코아트센터) 건립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Hive) 구축 ▲다양한 분야 융합·직업 창출 디지털 시민학교 운영 ▲순천만 오토캠핑장 조성 ▲순천형 종합 스포츠파크 조성 ▲재활용품 회수시스템 전면 개편 등 17개 사업이다.

시는 이 사업을 '전남도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 TF'에 1차 보고 후 지역 국회의원 및 정치권 등 소통 가능한 채널을 총동원해 인수위와 정부 부처를 방문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미래 순천의 100년을 준비할 30만 정원 도시 큰 그림이 새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되고, 국비 공모사업 등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구례군, '전통시장 라이브커머스' 호응

실시간 동영상 상품 판매 채널

구례군은 최근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으로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채널인 '그립(Grip) 라이브커머스'를 진행,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으며 순조로운 출발을 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18일 4시간 동안 진행한 그립(Grip)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102명의 소비자가 420개의 물품을 구매했다.

그립 라이브커머스는 진행자가 시장을 돌아다니며 상품을 카메라로 비춰주고 신선도 등 고객의 궁금사항에 대해 답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핸드폰에 그립 어플 하나만 설치하면 누구든지 구례 5일시장에서 쇼핑을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비대면으로 질 좋고 저렴한 시장상품을 살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며, 시장 특성상 즉석에서 시청자들과 소통을 한 뒤 상인들과 가격 흥정을 하거나 덤을 요청할 수도 있어 소비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최소 구매금액 없이 판매장터를 돌면서 구매한 물품을 당일 택배로 발송해 다음날 받아볼 수 있고, 배송료도 구례군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소액 구매도 부담 없는게 장점이다.

군은 오는 5월 23일에 라이브커머스 두 번째 방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구례군 관계자는 "이번 라이브커머스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추진하게 됐다"며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 바란다"고 전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곡성세계장미축제 3년 만에 열린다

섬진강기차마을서 5월 21일 개막 기간 늘리고 장미정원 2배 확장

곡성군이 '곡성세계장미축제'를 오는 5월 21일부터 6월 6일까지 섬진강 기차마을에서 3년 만에 진행한다.

곡성세계장미축제는 행안부 결산 전국 지역축제 흑자 1위에 오를 정도로 만족도와 화제성이 높은 축제였으나, 코로나19로 개최를 하지 못하다 올해부터 다시 관람객을 맞이하게 됐다.

곡성군은 3년 만에 재개하는 축제의 개최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17일로 대폭 늘렸다.

4만㎡였던 장미정원도 확장 공사를 통해 7만5000㎡로 2배가량 넓혀 중국, 로마, 그리스, 프랑스, 영국 등 각 나라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세계 정원을 새롭게 조성했다.

올해 축제는 '골든로즈 시즌2! 장미 무도회'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중앙무대에서는 축제 기간 내내 다양한 공연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올해 축제의 꽃인 '로즈 왈츠' 공연은 중앙무대에서 6월 3일과 4일 오후 2시부터 펼쳐진다.

장미무도회 형태로 국가 공인 스포츠댄스 선수들의 화려한 탱고와 왈츠를 눈앞에서 즐길 수 있다. 축제장 곳곳에는 피크닉 존, 버스킹 존, 이벤트 존, 푸드 존 등을 갖춰 다양한 즐길 거리를 마련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3년 만의 부활인 만큼 올해 축제는 모든 것을 파격적으로 준비했다"며 "보고 즐길 거리를 많이 마련했으니, 많은 이들이 축제장에 찾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wangju.co.kr

여수 인근 해양사고 79% '운항부주의·정비 불량'

여수해경 1분기 해양사고 분석 충돌·좌초 등 6대 사고는 감소

여수 인근 해양사고 대다수가 운항 부주의 등 '인적요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해양경찰서는 1분기 해양사고 분석 결과 선박사고는 총 52척 발생했으나, 충돌·좌초·전복·화재·침수·침몰 등 인명피해가 높은 6대 해양사고는 감소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선박사고는 총 52척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척 증가했다. 매월 평균 17.3척이 발생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또 1분기 인명피해 가능성이 큰 6대 해양사고는 23척으로 지난해 대비 7척 감소했다.

사고 원인별로는 운항 부주의, 정비 불량 등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가 41척으로 1분기 전체 해양사고에 78.8%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선박 종류별로는 어선 26척(50%), 화물선과 유조선 9척(17.3%), 레저기구 8척(15.4%), 낚시어선 4척(7.7%), 기타 5척(9.6%) 등으로 어선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해경은 관할해역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다발해역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선제적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수난구호 위험 예보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매 분기 해양사고 분석을 통해 사고 대비·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해양 종사자 안전 수칙 준수 등 안전의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광양시, 구봉산 관광단지 규모 확대

18만8464㎡ 늘려 232만㎡ 사업비도 700억 ↑ 3700억

광양시가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예산도 추가한다.

구봉산 관광단지는 2017년 '광양LF스퀘어' 개장 당시 광양시에 제출한 ㈜LF네트웍스의 지역협력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2019년 사업 제안 당시 골프장 조성사업으로 시작했으나, 이후 광양시에 필요한 숙박시설과 관광시설을 갖춘 관광휴양단지로 그 범위를 넓혔다.

지난 2020년 12월 사업 전담법인 (주)LF리조트를 설립한 후, 2023년까지 광양시 황금동 산107번지 일원 면적 213만8370㎡ 규모에 3000억원을 투자해 숙박시설 320여 실, 27홀 골프장, 휴양문화시설을 도입할 계획이었다.

광양시도 이에 맞춰 부지 매입 등 행정적 지원을 위해 TF팀을 운영하고, 관광단지팀 전담부서 신설, 전남도-광양시-㈜LF리조트 투자협약(MOU) 체결 등 사업의 조속한 시행과 성공을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부지 매입률이 4월 현재 사유지 기준 약 85%를 보이며, 지난 3월 31일 전남도지사가 수립하는 5개년(2022~2026년) 법정계획인 제7차 전남권 관광 개발계획에 신규 관광지로 반영됐다.

오는 5월께 최종 확정되면 ㈜LF리조트에서 광양시로 '구봉산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할 전망이다.

시는 이와 함께 추가 부지에 대한 신속한 확보를 위해 21일 오후 2시 골약동사무소 3층 강당에서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관광단지 개발 필요성과 토지 소유자에 대한 부지 매입 협조 등이 안내된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순천경찰, 디지털 성범죄 예방 캠페인

순천경찰이 불법촬영·유포, 이를 이용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순천교육지원청, 전남성폭력상담소, 참수리어머니회와 함께 20일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사진〉

이번 캠페인은 채팅·게임 중 상대방에게 성적 욕설을 하거나 음란한 대화(메세지)를 하는 행위가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동의없이 사진, 영상을 찍지도, 합성하지도, 보내지도, 보지도 않습니다!' 등 학부모와 청소년들이 알아야 할 7가지 성범죄 예방 안전수칙이 담긴 리플릿을 배부했다.

최병윤 순천경찰서장은 "최근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와 협업하고,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